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11.16.(월) 10:00 배포 2026.11.16.(월) :08:00

AI·드론 등을 활용한 “국유재산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추진

- ’26년 3분기 기준 계획 대비 84.1% 점검 완료 및 위험자산 개보수 조치
- AI기반 스마트 안전장비 등의 도입으로 과학적·체계적 안전관리 실현

재정경제부는 ‘노동안전 종합대책(’25.9월)’ 등 정부의 재난·안전관리 강화에 발맞추어 ’27년 국유재산 종합계획(’26.8.20)’ 에서 ‘국유재산 안전관리 체계화·고도화 계획’을 마련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9월말 현재 ’27년 국유재산 종합계획에 따른 ‘국유재산 안전관리 체계화·고도화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마련한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재산에 대한 정기·특별 점검 계획 등(‘26년 6,558건)에 따라 5,515건의 재산에 대한 안전점검(84.1%)을 완료하였으며, 점검 결과 드러난 184건의 재해위험 우려 재산(토지·건물)에 대해 지반 보강(36건), 위험 시설물 보강(12건), 위험 건물 해체(57건) 등의 보완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건물 개보수 현장 등을 대상으로 드론, AI를 활용한 안전점검 기술을 도입하여 안전점검을 과학화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AI가 현장 사진을 분석해 유해·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는 AI 위험성평가를 모든 개보수 현장으로 확대하여 총 387건의 위험 요소를 발굴하고 위험시설 정비, 시설물 보강 등 보완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2층 이상 건물을 드론으로 촬영하여 AI가 위험 요인을 분석·예측하는 시스템을 중대재해 우려 건물 5개 동에 시범 적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발주·관리하는 건설사업장에 CCTV와 AI를 연동하여 AI가 실시간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도를 예측·평가하는 AI 통합 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붕괴위험 경보기와 영상관제시스템 등의 스마트 안전장비를 보강하는 한편,

QR코드를 활용한 디지털 안전매뉴얼을 확대 배포하고, 준공된 사업장에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꽃·연기 등의 위험 요소를 실시간 감지·경보하는 AI 통합 관제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폐파출소, 중대재해 위험재산 등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전체 사업장으로 AI 관리체계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필요시 '국유재산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국유재산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 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안전 점검 후속 조치 및 AI 스마트 관리 체계 주요 내용

재정경제부	국고실 국유재산정책관	책임자	과 장	이상섭 (044-215-5160)
	국유재산협력과	담당자	사무관	황철환 (chual0106@korea.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 **안전 점검 후속 조치 및 AI 스마트 관리 체계 주요 내용**

□ (국유재산 안전점검) 점검 결과 드러난 재해 위험 사항 총 184건* 에 대해 개보수 조치 및 상시 모니터링 시행

〈재해 위험 사항 조치 세부 내용〉

토지			건물			계
토목 공사	시설물 보강	기타	해체 공사	정비 공사	기타	
36	12	29*	57	20	30**	**184**

* 현장점검 후 안전 등급 재조정, 출입 통제 등

** 출입 통제, 안전진단 등

□ (AI 위험성평가) 21개 개보수 현장에서 387건의 위험 요인 발굴·조치

〈개보수 현장 종류별 위험 요인〉

위험시설	옹벽	보수·보강	방수	설비	계
162	24	62	84	55	**387**

□ (안전관리 고도화) AI 관리 체계 시범 도입 및 스마트·디지털 장비 배포

○ AI 통합안전관리시스템(2개소) 및 통합관제시스템(2개소) 도입, 스마트 안전 장비 3개소(14대) 배치, 디지털 안전 매뉴얼(1개) 사업장 배포

AI 통합안전관리시스템	AI 통합관제시스템
	